



현대백화점의 이색 체험전 '나, 오늘 강릉이 꼴린다'(왼쪽), 스타필드 고양의 블록 키즈카페 브라리칸 등 오프라인 유통업체들이 체험형 콘텐츠 개발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

사진제공 | 현대백화점·신세계

‘슈퍼테테인먼트’ 하러 갈래?

(쇼핑+엔터테인먼트)

스타필드, 아쿠아필드·스포츠폰스터 등 체험공간 롯데 ‘골프&아웃도어’, 현대 ‘태권브이’ 이색 체험

‘슈퍼테테인먼트가 뜬다.’ 시장 점유권을 놓고 치열한 경쟁을 벌이는 유통기업들이 ‘체험형 콘텐츠’를 승부수로 던졌다.

‘슈퍼테테인먼트’(shoppertainment)는 쇼핑(shopping)과 엔터테인먼트(entertainment)를 합성한 신조어로 단순히 상품만 판매하는 것을 넘어 고객에게 재미와 흥미를 느낄 색다른 체험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24일 공식 오픈하는 신세계 스타필드 고양은 슈퍼테테인먼트를 전면에 내세운 대표적인 사례다. 고객들이 물에 머무는 시간을 늘리고, 다시 찾는 재방문율을 높이기 위해 다른 곳에서는 만날 수 없는 색다른 체험 시설을 다양하게 갖추었다. 스타필드 하남에 있던 체험 시설 아쿠아필드, 스포츠폰스터는 업그레이드하고, 여기에 새로운 키즈 체험 시설 토이킹덤 플레이, 블록 키즈카페 브라리칸, 불링장을 갖춘 펜시티 등을 추가했다.

아외나 별도시설에서 진행하던 체험형 마케팅을 백화점 매장 안으로 갖고와 색다른 경험을 제공하는 경우도

있다. 롯데백화점은 25일부터 29일까지 서울 소공동 본점에 ‘골프&아웃도어 라이프스타일 페어’를 진행한다. 시티와 퍼팅이 가능한 시설을 갖추고 골프장 그늘집 콘셉트로 휴게 공간을 마련하는 등 행사장 전체를 골프장처럼 꾸몄다.

현대백화점도 ‘로봇 태권브이 리턴즈’, 강원도 강릉시의 대표적인 관광 명소를 소개하는 이색 체험전 ‘나, 오늘 강릉이 꼴린다’ 등 체험형 콘텐츠를 잇달아 선보여 주목을 받았다.

●식재료 쇼핑과 미식체험을 동시에, ‘그로서란트’마켓 ‘그로서란트(grocerant)’마켓도 눈길을 끈다. 그로서리(grocery, 식재료)와 레스토랑(restaurant, 음식점)을 합친 말로 식재료 구입과 요리를 한 곳에서 즐길 수 있는 복합공간을 의미한다.

세계적으로 스웨덴 스톡홀름의 ‘어번 펠리’, 영국 런던의 ‘데일스포드 오가닉’, 미국 뉴욕의 ‘일 부코 엘라멘터리 앤 비네리아’ 등이 유명하며, 국내에서는 신세계백화점 본점과 강남점에 위치한 ‘단앤멜루카’가 대표적 성공 케이스다. ‘단앤멜루카’의 경우 영화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 미국 드라마 ‘섹스 앤 더 시티’ 등의 배경으로 등장하면서

뉴욕의 라이프 스타일을 상징하는 장소로 자리잡았다.

이런 추세에 맞춰 롯데마트는 서초점을 주축 조리가 가능한 공간으로 꾸몄다. 팩에 담긴 다양한 부위의 스테이크용 고기를 구매해 1500원의 조리 비용을 추가하면 채소와 소스를 곁들인 근사한 스테이크를 즐길 수 있다. 수산매장에서는 랍스터, 새우, 연어, 장어 등 집에서 조리하기 까다로운 수산물을 썰어낸 구이 등의 요리로 맛볼 수 있다.

GS슈퍼마켓 송파워레점도 정육 코너에서 구매한 스테이크용 축산물을 쿠킹존에서 구워 제공하는 델리 강화형 매장을 표방한다. 이곳 역시 고객이 구매한 스테이크 고기를 조리비용 1500원만 부담하면 구운 야채와 함께 조리해 제공한다.

유통업체가 ‘체험형 콘텐츠’에 승부를 거는 것은 고객들의 체류시간 증대가 주요 화두이기 때문이다. 임영록 신세계프라퍼티 대표는 “오프라인 유통업체의 경쟁자는 온라인쇼핑몰로 고객들을 집 밖으로 나오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지갑을 열지 않는 고객이 있을 수도 있지만, 일단 다음에 또 오고 싶은 욕구가 들도록 할릴 수 있는 공간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정정욱 기자 jjay@donga.com

롯데주류, 대한축구협회 4년간 공식 후원

롯데주류가 올해부터 2021년까지 4년간 대한축구협회를 공식 후원하기로 하고 21일 파주 NFC에서 조인식을 열었다.

롯데주류는 공식 후원사에게 주어지는 다양한 권리를 획득하고 대한축구협회가 주최하는 대표팀 경기의 A보드 광고, 경기중계와 하이라이트 영상에 ‘피츠수퍼클리어’ 브랜드 노출, 경기 입장권을 활용한 프로모션 운영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롯데주류 관계자는 “대한민국 대표팀의 선전과 대한축구협회의 발전에 일조할 수 있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 앞으로 국민스포츠인 축구 발전을 위해 함께하며 스포츠 이벤트를 통해 소비자와의 소통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원성길 기자 sereno@donga.com



롯데주류가 이란, 우즈베키스탄과의 2018 러시아 월드컵 아시아지역 최종예선을 앞둔 대한축구협회를 2021년까지 4년간 공식 후원한다. 21일 파주 NFC에서 열린 조인식에 참석한 이종국 선수, 정문규 대한축구협회장, 이종호 롯데주류 대표, 신대용 국가대표팀 감독, 이근호 선수(왼쪽부터).

파주 | 김준현 기자 won@donga.com

파라다이스시티 ‘더 스파’ 동서양 치유요법 재해석

인천 영종도 복합리조트 파라다이스시티(PARADISE CITY)가 프리미엄 스파 서비스 ‘더 스파’(THE SPA)를 도입했다.

‘더 스파’는 힐링 저니(Healing Journey)를 통해 동서양의 치유요법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해 프리미엄 스파의 혁신을 몰고 왔다는 평을 듣고 있다. 파라다이스시티 더 스파는 고객에 대한 맞춤형 럭셔리 프로그램을 도입했다. 프리미엄 스파답게 프라이버시를 보장하는 개인 공간 분리와 동선을 고려한 구성이 매력적이다.

스파 입구부터 웰컴 리추얼(Welcome Ritual)을 통한 1대1 관리를 통해 철저한 맞춤형 상담이 진행된다. 동양 우주관을 접목시킨 오형 오일을 본인의 피부 상태에 가장 적합한 것으로 선택할 수 있고, 선택한 오일에 따라 사파차, 쉼차, 생강차, 복숭아차, 메밀차 등 어울리는 차도 제공한다. 계절형 통합커뮤니케이션팀장은 “최근 호텔 업계의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웰니스 열풍에 발맞추어 고객들의 니즈에 맞춘 우아한 힐링 타임을 선사하고자 더 스파(THE SPA)를 론칭하게 되었다”고 덧붙였다.

파라다이스시티 더 스파는 30분 코스인 ‘바디 트리트먼트’, 70분 코스의 ‘에이지 리버스 페이스 트리트먼트’, 강화된 집중 케어를 원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한 100분 코스 ‘파라다이스 저니’ 등의 프로그램이 있고, 섬세한 터치를 통한 긴장 완화를 찾는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파라다이스 터치도 있다.

김재범 기자 oldfield@donga.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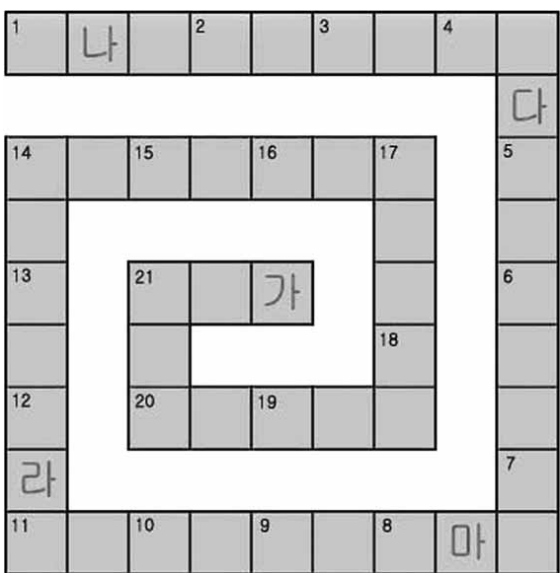
인사

◇과학기술통신부 ▽국장급 임용 △대변인 정한근 △성과평가정책국장 강건기 △국립과천과학관 전시연구단장 최호권 △장관정책보좌관 윤천원

부고

강주현의 퍼즐월드

다음 문제의 열식을 잘 읽고 빈칸에 알맞은 낱말을 써 넣어보세요



■열쇠

01. ‘부부’를 정답계 또는 귀엽게 이르는 말.
02. 시험 문제가 적힌 종이나 답안을 쓰는 종이.
03. 가무의 조조를 맞추어 흥을 돋우기 위해 부르는 소리.
04. 자가용을 차 주인이 손수 운전하는 일.
05. 입체의 표면을 적당히 잘라 평면 위에 펼쳐 놓은 도형.
06. 매년 음력 윤월과 설달에 벼슬아치의 성적을 평가하여 벼슬을 떼거나 올리던 일.
07. 주체성 없이 세력이 강한 나라나 사람을 받들어 섬기는 사상.
08. 다치고 병든 사람.
09. 적이 침입하면 저절로 울렸다는 북.
10. 수수를 원료로 하여 빛은 중국식 증류주.
11. 술이 나뭇을 데우거나 이를 답아 잔에 따르게 된 글.
12. 동글넓적하고 아가리가 짝 벌어진 질그릇.
13. 맞춤이 아닌, 미리 만들어 놓고 파는 구두.
14. 소용돌이치며 흐르는 물.
15. 서양화에서, 물감을 물에 풀어서 그린 그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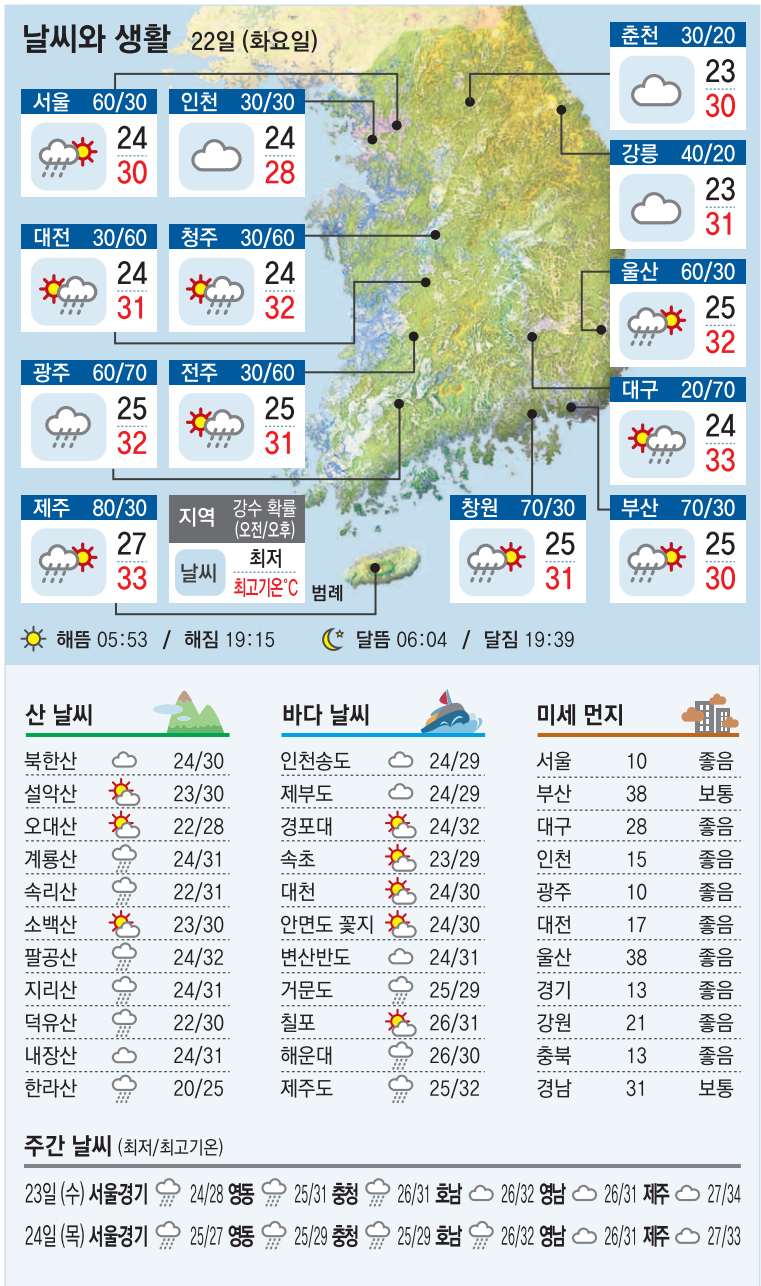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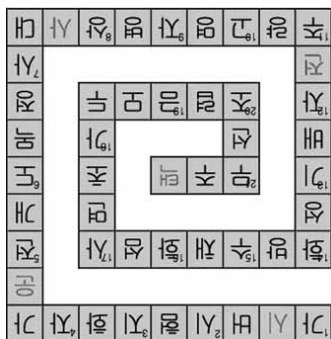
16. 화학 섬유로 만든 실.

17. 사면이 모두 적에게 포위된 경우와 고립된 경우를 이르는 말.
18. 길을 가는 사람으로부터 기부금을 모으는 일.
19. 사냥하여 잡지 못하게 하는 새.
20. 왜무에 대한 등글고 단단한 재래의 무.
21. 자기 소유의 집이 없음.

■ 퍼즐정답

단어 이어가기:

낱말을 모두 쓴 다음 가. 나. 다... 간의 글자를 차례로 이어 놓으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영화 제목이 됩니다.



박경호의 운수 좋은 날

8월 22일(화요일) 음력: 7월 1일

	쥐 행운색: 청색	오늘의 마음:싸늘, 소심한 날. 운세: 안이한 생활에 젖어 물질적으로 파탄이 오거나 퇴폐적인 생활을 하게 될 때이다. 하지만 부패와 혼란의 시기는 동시에 혁신, 신생의 시대라 할 수 있다. 길방: 동
	소 행운색: 적색	오늘의 마음:쾌청, 상쾌. 운세: 소가 뱀을 만나는 날이다. 소는 자신의 재능을 숨기려는 기운이며, 뱀은 활동적이고 행동하는 기운이다. 학업, 연구, 문학, 예술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날이다. 길방: 남
	호랑이 행운색: 검정	오늘의 마음:구름, 자유 추구. 운세: 매사 외견상의 화려하고 성대한 것에 사로잡히지 말고 신중해야 한다. 감언이설로 사람들을 현혹하지만 자칫 망언이나 희롱이 될 수 있어 일단 커지게 된다. 길방: 북
	토끼 행운색: 적색	오늘의 마음:여우비, 겨우 해결. 운세: 욕구분출, 잠재력발휘의 날이고, 건강과 금전에 대한 변동이 이루어진다. 계획과 판단력이 뛰어나 주변의 시선을 모으고 결과에 대한 과분한 응답을 얻는다. 길방: 남
	용 행운색: 적색	오늘의 마음:먹구름, 가시밭길. 운세: 어떤 일에서 다른 일로 운기가 바뀌는 날이다. 그러나 개혁을 급격히 행하기는 어려우며 서두르면 실패를 초래할 수도 있다. 신념을 가지고 끝까지 계속하라. 길방: 남
	뱀 행운색: 청색	오늘의 마음:파도, 힘이 넘친다. 운세: 창고에 곡물이 산과 같이 쌓여 있는 운기이다. 비교적 안정된 때이므로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향후의 계획을 세우고 착수하라. 낭비할 수 있는 날이다. 길방: 동
	말 행운색: 노랑	오늘의 마음:쾌청, 환한 하루. 운세: 배가 뚫을 높이 달고 물위를 달려 나가는 기운이다. 대사업에 이룩해 가는 시기이다. 이제까지의 불운을 만회하고 격정이나 번민에서 해방되는 때이다. 길방: 중앙
	양 행운색: 적색	오늘의 마음:여명, 일출 직전. 운세: 가만히 앉아서 일을 할 수가 없다. 가능한 한 먼 거리가 좋다. 해외업무나 출장 등 미리 정리 풀아다니면서 하는 일무가 좋다. 대폭적 승진이 이루어질 수 있다. 길방: 남
	원숭이 행운색: 검정	오늘의 마음:무지개, 소망 많다. 운세: 명예가 따르나 과욕을 부리면 도리어 구설이 뒤따르는 경향이 있다. 문서상 신중을 기하여 결여된 부분이 없는가를 확인하고 행동에 옮겨야 한다. 길방: 북
	닭 행운색: 노랑	오늘의 마음:노을, 허무하다. 운세: 인력을 연마하며 위험한 때가 지나갈 기다려야 한다. 운이 막혔으니 큰 것은 바라지 말라. 오늘은 파견근무의 기운이다. 근무의 결과가 좋아 진급과 연결된다. 길방: 중앙
	개 행운색: 흰색	오늘의 마음:맑음, 평화롭다. 운세: 사람의 턱과 같은 운기의 날이다. 사람은 턱을 움직여 음식물을 씹어서 육신을 기른다. 그러나 병이나 화 또한 입을 통해 들어온다. 구설수나 소화를랴에 주의하라. 길방: 서
	돼지 행운색: 흰색	오늘의 마음:해, 번개, 갈등. 운세: 활동적으로 움직이는 날이다. 영업적인 면에서 새로운 도약의 계기가 되는 날이다.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자세로 임한다면 의외의 결과를 얻을 수 있다. 길방: 서
	재운 코너	금주의 로또 행운번호: 2, 4, 7, 9, (6, 8) 금일복권, 주식, 부동산매입 행운의 띠: 호랑이, 말, 개 금일 주식, 부동산 매도 행운의 띠: 토끼, 양, 돼지

한국ABC 인증 스포츠신문 발행부수 1위
스포츠동아는 성인광고를 신지 않습니다

스포츠동아			광고문의 02 2020 1010 구독신청 1588 2020 FAX 02 2020 1015
발행인	송영언	대표전화 02 2020 0114	014-02 2020 1065
편집인	이성춘	편집부 02 2020 1032	02 2020 1062
편집국장	연재호	스포츠1부 02 2020 1041	02 2020 1027
광고국장	이승욱	스포츠2부 02 2020 1059	02 2020 1069
인쇄	동아일보사	기사 의견 제보 및 독자 투고 02 2020 1040	02 2020 1040
			sol@donga.com
			www.sportsdonga.com
			(우)03187 서울특별시 중구 경계천로 1
			2008년 3월 3일
			등록번호 서울 가-00131호
			2008년 3월 24일 창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구독료: 한달 12,000원, 1부 700원